

조선 선비의 사표... 면암 최익현



경기도 가평 조종암에 새겨진 재조변방(再造藩邦)

면암 최익현(勉菴 崔益鉉, 1833-1906)은 조선을 대표하는 선비다. 면암은 동아시아의 질서가 재편되고 국가의 명운이 경각에 달린 격동의 시기에 살았다. 그 신흥탄은 1840년 서양 제국주의 세력 영국과 동양의 맹주 청나라가 충돌한 아편전쟁이었다. 조선은 동양의 맹주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 사라진 명나라의 정신적인 전통은 조선이라고 자부했다. 조선은 소중화(小中華)였다. 명나라가 망한 지 40여년이 지난 1684년 이제두, 허적 등은 우암 송시열의 부탁으로 십삼산팔 가평 조종 천변 바위에 만절필동(萬折必東) 만 번 꺾여도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뜻) 재조변방(再造藩邦) 명나라가 도와서 나라를 되찾음)이라고 새기고 조종암(朝宗巖)이라고 불렀다. 조선중화사상과 숭명배청(崇明排淸)의 성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면암은 화서 이항로(華西 李恒老, 1792-1868)의 제자이다. 그는 중앙 김평묵(金平默, 1819-1891), 성재 유중교(柳重教, 1831-1893) 등 화서 학파 문도들과 함께 조종암에서 중화(中華)의 도(道)를 수호하겠다고 굳은 결기를 다지곤 했다. 그들은 사문(斯文)의 수호자로 자처했다. 사문을 수호하는 전철터는 조선이었다. 조선은 사문난적(斯文亂賊)들을 가져 없이 처단했다. 그러나 전선은 두 곳에서 발발하고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대원군이 만동묘와 서원을 철폐하는 조치를 취했고, 대외적으로는 양(洋夷)들과 일본의 침략이었다. 프랑스는 조선의 천주교 박해를 빌미로 강화도에 침입하다 패배한다. 1866년 병인양요다. 미국은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도를 침범하나 치열한 싸움 끝에 물러난다. 1871년 신미양요다. 조선에게 이들은 서양 오리개(洋夷)일 뿐이었다. 조선은 오리개들에게 결코 문을 열어줄 수 없어 쇄국(鎖國)정책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양이가 침범해도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전국 방방곡곡에 척화비를 세우기에 이른다. 대원군은 백성들의 열

고 임금한테 나아가 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내 목을 치라고 격하게 상소를 올린 경우는 고려의 우탁과 조선시대 중봉 조헌과 면암 최익현 세 사람뿐이다. 그만큼 면암의 척화소는 역사상 유례가 드물 정도로 격렬했다. 조야에 큰 파문을 일으켰음은 물론이다. 그가 개혁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했다. 개혁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었다.(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 1월 23일)

첫째, 화친이 상대편의 구결에서 나오게 우리에게 힘이 있어 능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 그 화친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겁나서 화친을 요구한다면 지금 당장은 좀 숨을 돌릴 수 있겠지만, 이후 그들의 끝없는 욕심을 무엇으로 채워주겠는가?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첫째 이유이다.

둘째, 그들의 물건은 모두 지나치게 사치한 것과 괴상한 노리갯감들이지만, 우리의 물건은 백성들의 목숨이 걸린 것들이므로 통상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더는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셋째, 그들이 비록 왜인(倭人)이라고 핏계대지만 실제로는 서양 도적들이니, 화친이 일단 이루어지면 사학(邪學)이 전파되어 온 나라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세 번째 이유이다.

넷째, 그들이 물에 올라와 왕래하고 집을 짓고 살게 된다면 재물과 부녀들을 제 마음대로 취할 것이니,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네 번째 이유이다.

다섯째, 저들은 재물과 여자만 알고 사람의 도리라고는 전혀 모르는데, 그들과 화친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다섯째 이유이다.

면암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야욕을 속속들이 간파하고 있다. 개혁하면 국가경쟁은 파탄지경에 빠질 것이고 일제에 철저하게 예속될 것이다. 유교의 윤리 도덕적 질서 역시 붕괴되어 백성들은 짐승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개혁은 인간으로 남느냐 짐승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긴박한 국가적 선택사항이 발생했을 때 도끼를 들

금부에 투옥된다. 이번에는 흑산도에 위리안치 된다.

청일전쟁(1894)에서 이긴 일제는 천러 경향을 띠는 명성왕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1895)을 일으킨다. 3개월 후 고종은 단발령을 공포한다. 유림과 백성들의 분노는 부글부글 끓었다. 제천 의병(유인석), 안동의병(권세연) 등 전국에서 의병이 일시에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면암은 “내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털은 자를 수 없다”고 격려했다. 고종은 면암에게 의병을 해산시키는 선유대원(宣諭大員)으로 임명한다. 면암은 “김홍집과 정병하, 조희연과 유길준보다 더 큰 역적이 없으니 설사 만토막을 내고 그의 십족을 도륙하더라도 귀신과 사람들의 분노를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왜적을 토벌하지 않고는 원수를 갚을 수 없다”(고종 33년 2월 25일)며 선유대원을 완강히 거부한다.

1900년 면암은 눈발을 헤치며 68세의 노구를 이끌며 조종암과 대동묘(大統廟: 명나라 황제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를 방문하여 춘추대의(春秋大義)를 방문하여 춘추대의(春秋大義)와 명분을 새롭게 다잡는다.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로 국권이 상실될 위기에 직면하자 면암은 창의격문(倡義檄文)을 선포한다. “이적이 화가 어느 나라엔들 없을까마는 그 어느 것이 오늘 날의 왜놈과 같겠는가? 바로 의병을 일으켜야 할 것이요, 많은 말이 필요없다.”(면암집) 면암은 임실군수를 역임한 임병찬 등과 함께 태인, 정읍에서 군수물자 등을 확보하여 순창에서 왜군과 싸우다 관군의 공격을 받아 중군 장정시해(鄭時海)가 전사하자 민족상잔의 참변은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의병을 해산하고 만다. 면암은 임병찬 등 13명과 함께 서울로 압송된 후 대미도에 투옥된다. 그는 고종에게 “원수를 능히 없애지 못하고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며...4천년 화하의 정도(正道)가 흠탕에 빠지는 것을 볼줄지 못하고 선왕의 백성이 어육이 되는 것을 구하지 못하였으니...”라는 유소(遺疏)를 남기고 일제의 것이라면 쌀 한 톨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며 국기를 끊고 순국하고야 말았다.

조선은 외국으로 유학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조선 땅에서만 세상을 진단하고 대응하려 했다. 면암은 소중화의 도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였다. 그러나 그의 시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이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였다. 면암은 “공법(公法)은 세계 만국이 다 같이 지키는 것이나 우리나라만이 행하지 못한다”(면암집)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민족의 자존, 국권 회복, 백성들을 오직 춘추대의만을 고집했다. 조선 선비의 한계였다.

편집국장 권행완

권순임(權順任, 부정공파 17世, 문종비 현덕왕후)과 이유(李瑛, 전주이씨 25세, 世祖)와 연관된 행사 참여

김문기선생 사육신 헌창 42주년 기념 세미나



지난달 22일, 매현기념관에서 권문(權門)과 연관이 있는 행사가 열렸다. (사)백촌한국학연구원(이사장 이철주), 김녕김씨 총의공 대종회(회장 김진기)주최로 갖은 날씨에도 (사)뿌리문화보존회(회장 석민영) 간부등 여러분이 참석했고 본 기지는 안동권씨 부정공파(현덕왕후 권씨 계파)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단종의 비극으로 부터 조선의 모든 역사는 꼬이기 시작하고 이 때 부당 부정한 무리들의 특세가 왜란, 당과, 호란, 노론, 세도, 친일로 이어지는 계보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발제자인 헌법재판관 출신 김진욱 박사의 강연은 그의 저서 (사육신의 진실)와 함께 감동적이고 생생한 증언이었다. 특히 1977년 중정부장 김재규의 입김으로 김문기가 옥신이 되었다는 낭설(?)에 대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팩트를 설득력 있게 논구하고 증언해주었다.

작년 겨울 찬바람이는 노량진 육신전공원에서 노을 지는 한강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생각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에피소드는 수양대군(세조)이 중국사신으로 가서 같은 입장(明 성조가 조카 건문제 즉출 황위 찬탈)을 먼저 경험한 것을 벤치마킹하고 귀국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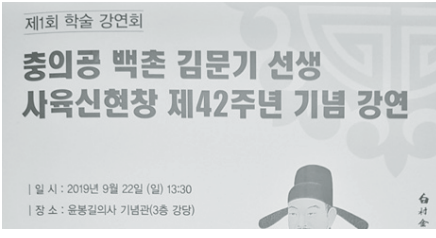
수양대군의 집에 늦게야에서 울리는 소리가 나자 이를 어느 아무꾼 점장이 놓이 곧 39세에 왕이되는 징조'라 꼬드었으니 이 또한 모사꾼 한명희(1415-1487)의 작란이 아닌가 한다.

후에 세조가 국문을 할때 옥신이 아니고 철신이구만 하고 말했다는 기록이 정조실록에 나오는 바 이것이 백촌 김문기를 지칭하는 지는 따져봐야 한다.

명 영락제가 방효유(方孝孺 1357-1402)의 9족 1000명을 몰살한것과 비유된다.

그 뒤 강연은 생략하고 잠시 매현기념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비오는 무궁화동산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다.

(권오철 기자)



명명황제 영락제의 제비가 권현비(북야공파 16世)이고 세조로 인해 집안이 몰살된 단종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權順任)와 그 부모(부 권專 부정공파 16세, 모 권阿)의 형제(권자신)들 이야기, 그 세조 편에 섰던 모사꾼 한명희의 조부 한상질(1350?-1400)의 묘가 얼마전 고려말 세도가 권준(權準, 1281-1352, 추밀공파)의 묘로 밝혀진 것, 한명희의 친구 권람(權寧, 추밀공파 17세)의 후손이 감히 종묘제례에 제관으로 참여하데 대해 분노 하던 일, 이 권람은 5촌 당조카딸 권영금이 백촌 김문기 김문기의 며느리로서 사육신 사건 이후 노비가 되었으나 자신이 권영금을 분배받는 형태로 하여 노비 신세를 면하게 하여 준 일도 있다.

또 이 세미나 장소의 주인공 윤봉길의 동갑내기(1908년 생) 도산 안창호 비서 구익근의 상해거사 당시의 생생한 증언(鳥山이 회책)과 또 도산체포에 대한 김경숙 여사(1916-2012, 의정왕장 김봉준 차녀)와 구익근선생의 2007년의 증언등을 기억하면서...

아 그리고 음악의 천재 세조가 부왕과 같이 만든 종묘제례악 원상보존회 대표로서 그 세조의 재능과 결단, 즉 세종이 찬탄한 음악 귀재 수양대군, 그리고 결국 신하의 반대로 시연하지 못한 조선식의 종묘제례악을 세조 즉위 후 강행한 것을 칭송해야만 했던 일 등이 또한 알듯은 인연소생이 아닌가 한다.

차후 권문(權門)은 김녕김씨대종회와 보다 깊은 연계를 가지고 친밀한 교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서울마포중친회 월례회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포중친회 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후 7시
- ◆장 소 : 우가촌(가마솥설렁탕) 02-702-5047, 010-5358-2840
- ◆오시는길 : 지하철5호선 공덕역5번 출구·지하철6호선 공덕역6번 출구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택 010-3796-4047

2019년 10월 1일
안동권씨 마포중친회 회장 권승구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안내 (제300차)

- ◆일 시 : 2019년 10월 20일 오전 7시(매월 3째 일요일)
- ◆산 행 지 : 충남 서산 팔봉산
- ◆집결장소 : 지하철 2호선 사당역 1번 출구 ※ 시간 엄수 바랍니다.
- ◆기 타 : 원정 산행(300회차 기념)
- ◆관광버스 : 하나 신청관광 경기79사7694
- ◆준 비 물 : 식수, 간식, 산행필수장비 등 개인별 준비(중식 제공)

회 장(권종훈): 010-4037-6656 등반대장(권오준): 010-3718-4204
사무국장(권순휘): 010-3797-1874
2019년 10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종훈

광고, 독자투고, 구독신청하세요

안동권씨 종보에서는 기업광고, 단체모임 등의 광고와 독자들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고, 독자투고, 구독신청 연락처◆
☎ 02)2695-2483~4 FAX 02)2695-2485
▶ E-mail : ankwon2483@naver.com
andongkwonmun24@daum.net
종보대금 납부 계좌번호 : 033237-04-006941(국민)

안동권씨 대종회